

지난 55호에 실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전홍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필자의 글을 읽고 벤처기업 엔지뱅크 신현재 대표가 소감의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독자들과 함께 나눠볼만한 내용이라는 판단으로 신현재 대표의 글 전문과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신 전홍윤 팀장의 글을 나란히 함께 실었습니다. 두 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위해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주>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만드는 건강한 사회

그 두번째 이야기

글 / 전 홍 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지난 번 필자의 글에 대해 어느 벤처기업 경영자께서 '질 좋은 제품생산과 매출 극대화 그리고 선순환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기여' 아말로 기업 본연의 자세라는 말씀과 함께 '주주의 이익과 사회공헌과의 연관성 특히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의미있는 반론을 주신 것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기업의 이윤추구, 필요충분조건인가?

최근 들어 부쩍 기업의 사회공헌 및 윤리경영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함께 논의가 일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 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의 추구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 및 결과의 선순환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오늘날 기업은 최고경영자나 대주주들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과 방향성을 가진 유기체로서 내적인 이윤추구만으로는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극심한 경쟁의 과정에서 기업의 행동은 종종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기업과 사회간에 합의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이 사회와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물론, 지적했던 것처럼 아직 우리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대부

분 기업이 자신의 주머니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고 기업에만 과도하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극심한 경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공헌은 아직 요원한 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반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기부를 못한다고 답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액기부보다는 소액 다수의 기부가 늘고 있는 것은, 나눈다는 일이 단순히 '부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님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다.

미국의 경우 부자들에게 보다 많은 감세혜택을 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부유층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가진 자들의 성숙한 사회의식과 그토록 많은 문제 속에서도 미국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전과 창의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

기업의 잘못된 교과서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업시민으로서 그리고 사회발전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더 많은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가의 철학과 실천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오늘도 많은 벤처기업들이 '도전과 창의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많은 구성원들 중에 우리의 벤처기업이 중요한 한 자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믿으며 모든 벤처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